

코로나 이후 국제결혼 수요 회복 다문화 혼인건수 5년만에 최다

데이터처, 2024 다문화 인구동태

작년 혼인건수 2만1450건 5%↑
외국인 아내 혼인비중 71% 기록
외국인 남편 18%, 귀화자 11%

다문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 부부 중 4분의 1가량은 여자 쪽이 연상이거나 동갑내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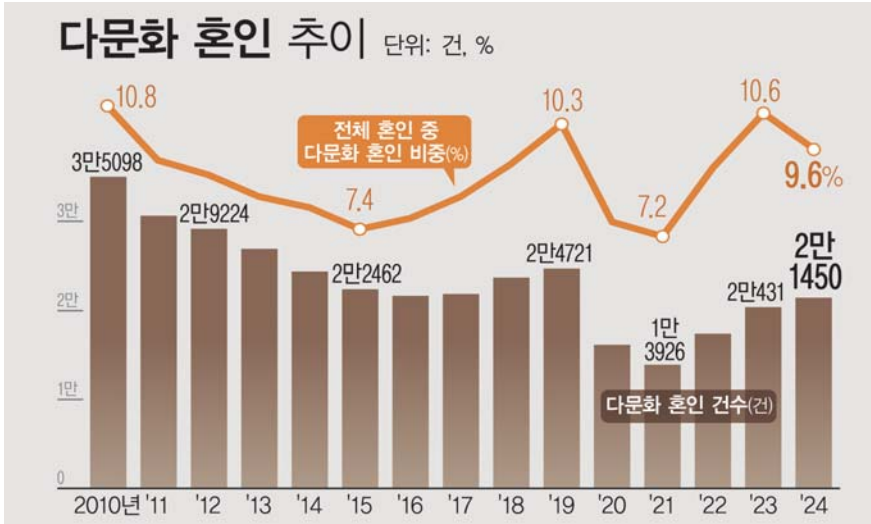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만431건) 대비 1019건(5.0%)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 4721건) 이후 5년 사이 가장 많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팬데믹이 엔데믹화하며 2022년에 반등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2만 건대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가 안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혼인 증가율(14.8%)이 다문화 혼인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하면서, 다문화 혼



/자료=국가데이터처

/뉴시스 그래픽

인 비중은 전년(10.6%) 대비 1.0%포인트(p) 줄어든 9.6%를 기록했다.

유형별 혼인을 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71.2%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남편(18.2%), 귀화자(10.6%)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차별 비중은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76.2%로 가장 컸다. 나머지 23.8%는 아내가 연상(17.9%)이거나 부부가 동갑(5.9%)이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7.3%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중 초혼 남편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전년 대비 0.1세 낮아졌고,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29.7세로 0.2세 많아졌다.

출신 국적별 혼인을 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0%), 베트남(3.6%) 순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 중국(15.9%), 태국(10.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992건으로 전년(8158건)보다 166건(-2.0%) 감소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과 비슷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3416명으로 전년(1만2150명)보다 1266명(10.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1년 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며 12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증가 폭(1266명) 역시 2011년 1702명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증가율로 보면 10.4%로, 지난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진청, 굴 부산물 친환경 농업자재 탈바꿈

농가소득 증대·환경개선 효과

그간 버려지던 굴 부산물이 악취저감제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등에서 즙을 짠 뒤 폐기 처분하던 굴 폐기물이 친환경 농업 자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감굴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감굴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물이 ▲악취저감제 ▲해충유인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쓰이게 된다.

한 해 국내 전체 감굴 생산량의 10% 정도(지난해 기준 4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폐기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 활용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감굴 부산물 활용 다각화를 목표로 부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침출수(탈리액)는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로,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고체 상태의 껍질과 펄프(과육)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는 감굴 부산물 침출수(탈리액)를 살균, 중화한 뒤,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제조한다. 이렇게 개발한 악취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주요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유용 미생물 처리 때와 비슷한 수준이나 감굴 부산물을 활용하면 많은 양의 침출수(탈리액)에 미생물을 배양, 악취 저감제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해충유인제는 감굴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을 이용해 만든다. 리모넨과 페로몬을 조합해 만든 이 유인제는 고구마, 인삼, 배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큰검정풍뎀이 암컷 유인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기존 페로몬 한 가지만 처리할 때보다 큰검정풍뎀이 유인·포획률은 약 45%(32.5→47.2마리) 향상됐다. 농가 2곳에서 실증한 결과 고구마 피해율은 52%에서 15%로 37%포인트(p) 감소했다.

토양개량 자재는 고체 형태인 껍질과 펄프를 원료로 만들었다. 땅심을 기르는 이 자재는 질소·탄소 비율과 인·칼륨 등 영양분 함량, 배합 물질을 조절해 작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흙에 섞어주면 기존 토양 자재(펄라이트, 바크 등)보다 물을 머금는 능력(보수성)이 50% 이상 향상돼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약 90% 줄일 수 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 직무대리는 “감굴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 비용 절감뿐 아니라 다각적 효과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온라인 판매농가 지원·홍보 나서

과천시 ‘농부가바로팜 팝업장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5일 이틀간 경기 과천 바로마켓에서 ‘농부가바로팜 팝업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6일 aT에 따르면 이 팝업장터는 온라인에서 활동 중인 농가와 꾸러미 판매 농가를 직접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3대째 포도를 재배하는 청년농가, 제주에서 유기농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천안의 60년 전통 배 농가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생산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쌓은 신뢰를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장하며 활

기찬 시너지를 만들어 냈다.

aT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온라인 농가에게는 소비자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바로마켓 장터에는 신규 농가 입점으로 활력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참여 농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다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니 반응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T의 기운도 유통이사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이익이 되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재생에너지 시설 ‘데이터 통합관리’ 가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고도화
부서 간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시설 운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공사가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모니터링 중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별도 예산없이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설비 운전이력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 부서 간 동일한 기준의 데이터를 공유해 업무 효율성과 데이



인천 서구에 조성된 자원에너지화 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터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시설 간 정보의 단절을 해소하고, 현장 근무자와 중앙시스템 간의 업무 연계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중복하여 작성되던 자료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이중업무가 줄고 행정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가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시설 운영의 신속성과 상황 대응

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공사의 모든 재생에너지 시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와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60% 감축 목표

기후부, 2030년 목표보다 대폭 상향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2030년 감축 목표인 4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특히 발전(전환) 부문에는 최대 75.3%라는 고강도 감축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NDC 수립 시 거쳐야 하는 공식 의견 수렴 절차다.

정부는 앞서 올해 9월 19일부터 지난 달 2일까지 총괄, 전력, 수송, 산업, 건물, 농축수산·흡수원 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은 기존의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두고 의견을 듣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제안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두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